



안토니 가우디 이 코르넷
하느님의 건축가
(1852-1926)

안토니 가우디 이 코르네트 (Antoni Gaudi i Cornet)는 1852년 6월 25일에 태어났다. 소년 시절 가우디는 레우스에 있는 아버지의 보일러 공장에서 일하며 자연스레 도형과 부피의 상호 관계에 관심을 두었고, 중부 타라고니아 지방 리우돔즈에 있는 가족 농가에서 자신의 위대한 스승이 된 자연의 순수한 이미지에 매료되었다.

그는 레우스의 피아리스트 수도회(Piarist Fathers of Reus)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 바르셀로나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그곳에서 그가 일생을 바치게 될 건축학을 전공했다. 1883년, 가우디는 갓 공사를 시작한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정) 성당의 건축을 맡게 됐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43년이나 매달렸고, 특히 그의 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가우디는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에너지를 바쳤다. 가우디는 신앙심이 깊은 출판업자였던 호세 마리아 보카베리야와 그가 설립한 성 요셉 봉헌재단 (Association of Devouts of St. Joseph)에서 건립한 성당의 종교적/속죄적 목표에 공감했다.

가우디는 비교적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명랑하고 친절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는 '희생 없이는 어떠한 가치 있는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기도와 탈속의 금욕적인 삶에 자신을 봉헌했다. 그는 가톨릭의 전례를 사랑했고, 성모님과 성 요셉께 헌신하였으며, 라 페드레라(Casa Mila)를 로사리오 성모님을 기리는 건축물로 여겼다. 그는 종종 '나는 자선 병동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을 받으며 한 명의 가난한 사람으로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실제로 전차에 치였을 때 그의 바람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경찰은 열차에 치인 허술한 작업복을 입고 있던 가우디를 부랑자라고 오인해서 성 십자가 병원의 자선 병동으로 보냈고, 1926년 10월, 가우디는 그곳에서 운명했다. 그가 남긴 유언은 "아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었다. 그의 유해는 성가정 성당 지하에 안치되었다.

개인적 헌신을 위한 기도

하느님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께서는 건축가인 당신의 종 안토니 가우디에게 당신의 창조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당신의 아드님께서 보여 주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열정의 신비를 본받으려는 불타는 열망을 주셨나이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저 또한 저 자신을 선택하고 올바른 일에 봉헌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한 당신의 종 안토니 가우디에게 영광을 주시어 그의 전구로 제가 청하는 은총 (이 부분에서 개인적 청원을 드리십시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나이다 아멘.

예수님, 성모님, 성 요셉,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고 저희 가족을 지켜주소서. (3번 반복)

은총을 받아 기부금으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나 기도 카드를 더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주소로 연락을 주십시오:

Associació pro Beatificació d' Antoni Gaudí
Apartado de Correos 24094
08080 Barcelona, Spain (España)

이 협회는 다른 가우디 관련 조직들이나 Board of Works of the Church와는 전혀 별개의 기구로서, 교회법상 승인을 받은 기구입니다. 교황 우르반 8세의 칙령에 따라 우리는 교회의 도움을 기대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이 기도는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기도가 아님을 밝혀두는바입니다.